

학생선발에 있어서의 다양화의 현실과 조건

박 병 진 | 한양대학교 입학관리실 전문위원

현재 개별 대학은 주어진 물적, 인적, 제도적 자원(조직역량)을 기초로 하여 대학에 요구되는 복합적이며 상충하는 가치를 선택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다양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I. 학생선발

대학은 복합적 기능을 가진 사회의 핵심적 조직이다. 지식의 창출과 전승이라는 전통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가 점차 복잡다단해짐으로 인해 많은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조직이다. 대학은 한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연구 및 개발, 새로운 인재에 대한 교육, 사회의 도덕적 자원으로서의 역할 등의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복합적 기능들은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학생의 선발과 육성이라는 기본 기능과 관련하여 학생선발은 우선 어떤 기준에 의해 입학대상을 뽑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선발은 대학이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재나 이에 준하는 능력을 가진 이에게 학습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한 과정이다. 대학진학은 개인적으로는 미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중요한 관문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력과 학벌이 중시되는 사회일수록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진학하였는가가 개인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사회적 수준에서 볼 때, 학생선발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하여 학생을 선택하는(selection) 과정이다. 다른 한편 이 선발은 계층간 경쟁이기도 하다. 대학입학은 다양한 사회계층이 가용한 모든 재화를 동원하여 이 경쟁을 준비하는 일종의 사회적 각축의 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경쟁의 게임은 학생의 능력에 대한 타당성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관리감독이라는 규칙에 의

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생선발은 공정성을 넘어선 다른 차원을 갖는다.

기존의 학생선발은 주로 학력 - 전국단위의 일회적 객관식 시험을 통해 검증되었다고 믿어지는 수능능력 - 이라는 단일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런 선발방식에 있어 제1원칙은 공정성이다. 이 과정에서 선발의 주체인 대학이나 학습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반영되기보다는 일종의 최저 기준인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선발의 확실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근자에 이르러 학생선발이 점차 대학의 자율성 신장이라는 변화에 발맞추어 대학 나름의 전형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2학년부터 기존의 방식과 다른 변화가 이루어졌다. 7차 교육과정이 시

작되는 2005학년도 입학생 선발부터는 다양성 정도가 더욱 심화되어 복잡해진다.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 및 특성화는 최근의 고등교육에 관한 논의의 주요 주제이다. 과거 우리는 국가건설과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재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 통로로서 많은 대학의 설립과 팽창을 경험하였다. 이제 질적 성장이라는 시대적 역할의 변화에 직면하여 대학의 존립조건으로서 다양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작금의 자율성 역시 도구적 교육관이 팽배해 있는 환경에서 제기되는 논의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를 궁구해야 한다. 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인 대학 전형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습의 대상이자 주체인 인간능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학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이라는 보다 광의의 맥락과 연계시켜 살펴보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현재 진행되는 학생선발의 다양성을 그 취지와 실태를 통해서 정리하여보고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고려해 보아야 할 새로운 기준과 근거 및 보완점에 대해서 논의하여 보도록 하겠다.

학생선발에 있어서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인 대학 전형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습의 대상이자 주체인 인간능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학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이라는 보다 광의의 맥락과 연계시켜 살펴보아야 한다.

Ⅱ. 다양한 입학 전형 필요성과 방법

입학전형의 다양성에 관한 최근의 논의는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한 대학입학 전형의 다양화가 대학 신입생 선발

제도의 개선과 중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1998). 이 안은 각 대학들이 대학이나 학과의 특성과 부합하는 전형방법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다른 교육부 정책백고서(1999)에 따르면, 대학입학전형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세 가지 방안, 즉 대학입학 전형 자체의 다양화, 전형자료의 다양화, 그리고 전형자료별 평가(혹은 측정)의 다양화라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첫째, 대학입학 전형 자체를 다양화하는 방

법은 학력과 비학력 요소를 중심으로 지원자격과 선발기준의 다양한 조합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9가지의 전형유형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1999, 55쪽 참조).

둘째, 전형자료를 다양화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학력관련 자료와 비학력 관련 자료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특히 비학력 자료로 제시된 것들은 ① 학과 관련 실무종사 경력, 포상 경력, ② 해당 학문 관련 특수 재능, ③ 해당 학문 분야에 관련된 전문적 지식 혹은 자격증, 학위, 관련 고시합격자 등의 자료, ④ 특별 활동, 연수 활동이나 봉사 활동 경력, ⑤ 문화·교육적 소외 지역 출신 혹은 신체 장애, ⑥ 특정 고등학교 출신, ⑦ 학교장이나 지역기관장, 종교인 등의 추천, ⑧ 개별 대학에서 시행하는 시험이나 접수 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구분하고 있다.

셋째, 전형자료에 대한 평가(혹은 측정) 방법을 다양화하는 방법은 주요 비학력 자료인 특기자(자격증, 인증 소지자), 면접, 봉사활동, 학교장 추천, 문화·교육적 소외지역 출신 혹은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Ⅲ. 다양성과 관련된 최근의 선발방식의 변화

전형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제시된 방안이 최근의 선발방식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이를 위해서 2002학년도부터 진행된 입학전형 기본틀의 전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05학년도부터 시행되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선발방식은 기본적으로 2002학년도의 변화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200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틀은 논술 이외의 지필고사를 금지하고, 1학기부터 정원의 20~40%까지 수시모집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차모집을 없애고 대신 수시와 정시 체제로 모집시기를 이원화하였다. 또한, 정시의 경우 가나다라 4개 군이 가나다 3개 군으로 축소되고 추천제가 확대되었다. 한편, 수능점수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도 모집단위별로 전과목 혹은 일부 성적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수능점수를 9개 등급화 하여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성적이나 점수 지상주의를 해소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2002학년도 새 대학입학전형의 취지에는 수능성적을 지원자격화 하여 국·영·수 위주의 암기식 입시제도를 탈피, 학생모집 시기 연중 확대, 추천제 등 대학의 독자적 특별전형을 대폭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선발의 길을 터놓고 있다. 이 틀은 성적 위주의 입시를 억제하고 특기·적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기본 취지를 담고 있다. 우수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현재의 시험점수에 반영된 편협한 인재관을 탈피하여 학생들의 수행활동의 중요성을 입학전형에 포함시켜 국·영·수 위주의 과열 과외를 해소함으로써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다는 의도도 담고 있다. 또한, 농·어촌특별전형, 만학도, 소년소녀가장 및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전형은 사회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사회통합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004년 1월 28일에 전국 4년제 대학 199개교의 전형안을

발표하였다(2004). 이 전형안은 2002년 틀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수능영역을 나누고, 탐구영역은 과학탐구, 사회탐구 및 직업탐구를 두고 각 탐구영역 내에 여러 과목 중 일부만 선택하여 응시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완화시키려는 취지가 반영되었다. 이 안에 나타난 전형의 특징은 학생과 대학의 선택 폭의 확대, 수시인원의 증가, 정시 반영과목의 변화, 백분위와 표준점수를 개별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선택, 대학의 독자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정원 외 특별전형의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99개 대학의 2005학년도 전체 모집 인원은 39만4천379명으로 지난해 보다 1천324명 줄었다.¹⁾ 수시와 정시모집을 합쳐 대학별로 연간 4~5회의 모집이 일반화되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수시모집 인원이 대폭 확대된다. 대학마다 우수학생을 조기 유치하고 수험생 감소에 따른 미충원 현상을 줄이기 위해 수시모집을 확대함에 따라 모집 비율이 2004학년도 38.8%에서 2005학년도에는 44.3%로 높아지고, 실시 대학도 수시1학기가 88개대에서 102개 대학으로, 수시2학기는 178개 대학에서 180개 대학으로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정시모집 비율은 55.7%로 감소했다. 그러나 모집시기별로는 '가' 군이 87곳에서 111곳, '나' 군은 110곳에서 120곳,

'다' 군은 100곳에서 109곳으로 각각 늘어 분할모집의 폭이 확대되었다.

둘째, 수능시험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부여하게 되는 2005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대부분 대학이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 탐구영역(사회, 과학, 직업 중 택일)을 더한 '3+1', 또는 계열에 따라 언어와 외국어 영역에 사회탐구나 수리, 제2외국어, 과학탐구를 반영하는 '2+1'을 적용한다. 탐구영역 내에서도 영역별로 8~17개 과목 가운데 영역별로 4과목 또는 3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는 탐구영역은 서울대 등 극소수만 영역별로 1~2개 과목을 지정할 뿐 거의 모든 대학이 주로 2~3과목을 반영한다.

**전체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는 2005학년도
 대학입시는 학생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대학별 전형이 다양해져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더
 복잡해졌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선택형'으로
 바뀐 점이다.**

셋째, 수능성적은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으로 크게 나뉘고, 표준점수는 영역 및 선택과목간 난이도 등을 조정하지 않고 원 상태로 제공된다. 어느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른다. 학교생활기록부 실질반영률은 10.0% 정도로 2004학년도(8.21%)보다 약간 높아져 당락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고등학교별 학력수준의 차이가 엄존하고(조선일보, 2004년 2월 16일 기사 참조) 고등학교내 학점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면 많은 보완적 장치가 요구된다.

넷째, 일반전형으로 63.3%를 뽑고, 특별전

1) 동덕여대의 모집인원이 1천600명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모집정원은 3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형으로 36.7%인 14만4천424명을 선발하는데 이는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중 대학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이 9만5천836명으로 가장 많고 특기자, 산업대학, 취업자 전형은 각각 8천446명, 6천747명, 3천741명이다. 학교장 및 교사 추천자가 3만7천822명으로 가장 많고, 교과 내신성적 우수자 1만3천760명, 실업계 특성화고교 출신자 1만675명, 특목고 출신자 66명, 대안학교 출신자 4천268명, 지역할당(우대) 6천192명, 특기, 자격, 경력 우수자 4천49명 등이다. 그 외에도 3대 이상 가족동거자(한양대), 논리·논술(군산대와 세종대), 방송연예(광운대와 중앙대 등 10개교), 발명(목포대 등 6개교), 만화(순천대 등 3개교), 바둑(명지대) 등의 기준으로 학생들을 모집한다.

공무원이나 교직원, 종교인, 항공 종사자, 동일 직종 종사자, 선원, 산재근로자, 사회봉사자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도 있으며, 선·효행자, 사회적 배려대상자, 기능 우수자 등도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다섯째, 정원 외 특별전형은 농·어촌 학생과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자, 특수교육대상자, 재외국민과 외국인, 산업대학 위탁생을 대상으로 2만9천654명을 뽑는다. 이는 지난 해보다 2천여 명 가량 늘어난 수치이다.

전체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는 2005학년도 대학입시는 학생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대학별 전형이 다양해져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더 복잡해졌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선택형'으로 바뀐 점,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을 위한 직업탐구가 새로 도입된 점, 한문이 제2외국어와 함께 5교

시 선택과목으로 신설된 점과 응시영역과 과목이 크게 늘어난 대신 응시영역과 과목을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고등학교과정에서 사전에 정해졌던 인문, 자연, 예·체능계 구분이 없어지고, 수험생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의 요구에 따라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5개 영역과 영역별 선택과목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응시하면 된다. 그러나 대학별 필답고사는 논술고사만 허용하고, 기여입학제 및 고등학교등급제 적용을 금지하며,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및 비교과)와 수능성적, 추천서, 자기소개서, 논술고사, 심층면접, 실기 등을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점 등은 예년과 같은 제한점이다. 기존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학의 선택이 제한적으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Ⅳ. 학생선발과 전형 결과에 나타난 다양성의 구현 실태와 문제점

앞서 2002학년도 이후의 학생선발 방식의 변화와 2005학년도 4년제 대학 전형안의 내용을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다양한 전형방식이 적용된 이후 그 결과가 과연 최초 의도한 다양성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차례이다. 우선 다양성을 결과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자. 결과적 다양성은 주로 신입생 구성의 실질적 다양성, 다양한 사회적 성원과 특성을 가진 구성원간의 교류와 협업 방식에서의 다양성, 대학의 다양성(다양화, 특화, 전문화) 등의 여러 차원이 있을 수 있다. 결과적 다양성은 선발된 학생의 구성 자체가 전형취지에서 의도한 다양성과 얼마나 일

치하는지와 학생구성의 다양성, 교육과 학습 내용의 다양성, 성취결과 측정의 다양성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명목적으로는 수능과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 이외의 비학력기준에 의한 선발 비율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비학력기준에 의한 선발과 계층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발견된다. 다양한 선발방식은 기존의 학력경쟁에서 1차적으로 실패한 사회의 특정 계층(주로 중상층)의 대학 진학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수단 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의 다양성은 중상층의 학력경쟁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차별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가

최근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다양성 자체를 연구주제로 한 경험적 연구들은 드물지만, 관련 연구들을 통해 이 문제를 간접적으로나마 평가해 볼 수는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2004)이 행한 사회대학의 입학생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새로운 입학전형이 발표된 당해 연도에는 강남 지역의 학생들에게 약간 불리하게 작용하나 그 다음 해부터는 원상복귀되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집단은 가족자본을 이용하여 입시준비 학원이나 개인교습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에 빠르게 적응하여 대학진학에 유리한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수시전형에 의해 입학한 학생 중 서울과 대

도시 출신 비율이 그렇지 않은 지역 출신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서도 드물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서울 소재 모 대학의 경우 2003학년도 입학생 중 정시모집보다 수시모집에서 수도권 학생들의 비율이 17%나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보고되기도 했다.

한편, 전형의 다양화 추이와 반대로 학력기준이 재강화되는 경향이 발견된다. 2005학년도 정시모집에서는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주요 대학들의 전형에서 수능점수 반영비율을 높여 수능으로 대변되는 학력기준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추세가 예상된다. 이 경우, 사교육의존도가 심화되고 재수 경향이 증가한다. 서울대의 수능성적 위주의 선발로 인해 특목

주요대학이 주도하는 수능과 같은 학력기준으로의 복귀 경향은 학생의 잠재능력(latent capability)보다는 점수로 나타난 현재능력(manifest ability)에 선발의 초점이 강화되어 선발의 다양성이라는 최초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고 학생들이 정시전형에서 더 유리해졌다(연합뉴스, 2004, 2.11). 서울대에 따르면, 올해 정시모집 합격자 2957명 가운데 특목고 학생은 276명으로 9.3%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2002학년도 5.2%(154명), 2003학년도 6.5%(196명) 등으로 매년 늘었다.

이 경향은 다른 대학에서도 발견되는데, 고려대도 2004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3882명 가운데 특목고 학생은 521명 13.4%를 차지했다. 지난 해 11.5%에 비해 1.9% 포인트 늘었다. 반면 올해 수시모집 합격자 가운데 특목고 학생 비율은 8.5%로 지난 해 16.8%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양 대학에서 발견되는 현상은 입학정책의 주도권을 가진 소수의 대학들이 학력위주의 선발방식으로서의 재전

한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정시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임에 따라 수능성적이 좋은 특목고 학생이 전형에서 유리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경향은 심지어 현재된 학력에 의한 사회적 차별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에서조차 점차 강화되고 있다. 서울대는 입학생의 지역편중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역균형 선발제를 통해 수시모집 정원의 20% 내외를 지역균형 선발제로 뽑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전형에서도 최소 자격기준은 학력으로 최소한 수능 2개 영역 2등급 이상의 조건이 있다. 대부분의 수도권 주요 대학들의 경우에도 서울대와 유사하게 수시전형에 최저학력기준을 두어 입학에 제한하고 있다. 이는 현재 나타난 학력기준 우선주의가 여전히 크게 반영되고 있음을 말한다.

학생선발의 다양성을 향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사실들은 여전히 학력기준은 다양성을 압도하는 기준으로 작동하는 단일 기준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학력기준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수시전형도 학력조건에 의해 보완됨으로 인해 최초의 의도와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이러한 학력기준으로의 회귀현상은 일선 대학교의 선발 철학과 원칙이 단기적 경쟁에 치우쳐 매우 유용적임을 새삼 확인하게하는 증거이다. 다시 말해서, 주요대학이 주도하는 수능과 같은 학력기준으로의 복귀 경향은 학생의 잠재능력(latent capability)보다는 점수로 나타난 현재능력(manifest ability)에 선발의 초점이 강화되어 선발의 다양성이라는 최초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V. 사회적 맥락에서 살펴본 학생선발의 다양성

우리나라 대학들의 전형방법은 정시모집이든 수시모집이든, 일반전형이든 특별전형이든 그 형식과 무관하게 선발기준이 대부분 학력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형유형과 관계없이 학력은 대학입학에 있어 거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각 대학별로 무수히 많은 이름만큼이나 다양한 수시1, 2의 전형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형태이건 학교나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하여 평가된 학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다시 말해서, 천편일률적 다양성(다양성의 천편일률성)이 그 특징이다. 획일화된 시험점수에 의해 입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학력중심 측정주의는 우리 사회와 대학이 인간의 능력을 얼마나 협애하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 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대학사회에 최초 의도한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결과적 다양성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양성의 정도는 대학 조직이 기초하고 있는 교육철학, 사회가치, 대학의 조직능력, 건학이념 등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한편, 대학의 자율화와 연관지어 다양한 능력을 가진 인재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회적 조건이 있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다중지능이론의 대두
- 지구화의 확산과 침투
- 역동적 지역화
- 일상의 삶 속에서 구현되는 보편적 가치
- 사회적 정의의 구체화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全) 지구적

활동범위를 가진 인재,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인재, 학력 이외의 다양한 능력을 지닌 인재, 인간활동의 다양성을 고양시키는 인재, 대학의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인재의 선발과 육성이 우리 사회와 대학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획일화된 형식적 다양성을 지양하고 새로운 능력이론에 기반한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통하여 국제 사회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하여 국제적 리더십을 신장시키고, 아울러 내적으로 모든 계층이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의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미의 인재관이 요구된다. 이 인재관에 입각해서 다양성을 규정하고, 이를 각 대학의 특수한 설립이념 및 조직역량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학생선발과 입학전형을 형성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다양성일 것이다. 다양성의 사회적 실현은 결과적 다양성의 지속적인 추구가 실행정책(steering plans)으로서 잘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서의 전환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의미한다.

1. 선발주의가 아닌 발전주의적 인간관

인간의 능력은 삶의 초기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과 개인의 요구에 따라 새롭게

규정되고 발달되는 것이다. 대학에 입학할 당시의 능력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발전될 수 있다. 능력은 삶의 다양한 사회적 지점과 영역에서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인간의 능력에 대한 선발주의적 평가관을 넘어 아닌 발달주의적 평가관으로의 발전이 요청된다. 탈선발주의적 관점으로 선

발과 발달이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관의 확립이 필요하다.

단일한 기준에 기초한 인재의 선발방식의 문제점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단일능력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창의적 능력보다는 반복된 학습에 의해 주어진 문제를 실수없이 풀어 나가는 숙달된 문제풀이형 인간들을 양산하는 시

험사회의 폐해가 그 중의 하나다. 선발주의적 인재관은 인재의 발굴보다는 소수의 배타적 선발과 이 집단의 엘리트집단과의 편입을 정당화해 준다. 선발집단에 대한 추후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보다는 타집단과의 차이나 차별화를 통한 이질화에 보다 관심을 가진다. 이런 관점은 다양한 능력을 지닌 인재에 대한 평가의 소홀, 배제집단의 박탈감, 배제원칙의 영속성으로 인한 배제집단의 왜곡된 피해의식과 선택집단의 무모한 우월의식 등이 만연하게 되는 원천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인재관 혹은 능력이론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다중지능이론은 새로운 인재관의 중요한

획일화된 형식적 다양성을 지양하고
새로운 능력이론에 기반한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하여
국제적 리더십을 신장시키고,
아울러 내적으로 모든 계층이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의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미의 인재관이 요구된다.

이론적 자원이다.

2. 단순 지능보다는 다중지능

최근에 하버드대학의 가드너(Howard Gardner, 2001) 박사에 의해 주장되어 관심을 받고 있는 다중지능이론에 따르면, 지능을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음악지능, 공간지능, 대인관계지능, 신체지능, 자연탐구지능, 자기이해지능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중지능의 영역은 사회의 주요 하위 영역과 일치하고 있다. 다중지능이론에 의거한 인간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대두는 학습능력 혹은 대학생활 속에서 발현해야 할 능력의 기초에 다차원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이론에 동의할 경우 암기와 반복적 훈련을 통한 실수의 방지에 초점을 둔 기존의 학력측정방식의 허점을 매우 쉽게 식별할 수 있다. 다중지능이론은 그간의 특정한 인지능력 위주의 인재관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차원의 능력의 존재를 밝혀 줌으로써 현실 사회의 복잡성과 이에 적합한 인재의 발굴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이론은 그간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 오다 최근에 멀티미디어 매체가 교육에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이 이론의 정당성이 더욱 확대되었다. 지식정보사회에 풍부한 적용 가능성을 가진 능력이론으로 학생선발의 다양화를 위한 주요한 이론적 자원이다.

3. 현재적 능력 못지 않게 잠재적 능력에 대한 중시

현재 대학들은 우수한 능력을 이미 보여 준

학생에 대한 선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만약 잠재성이 풍부한 다른 능력을 지녔으나, 아직 교육여건이나 가족의 지원이 미흡하여 입학 당시까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우리의 대학들은 이러한 유형의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현재능력과 다른 잠재능력을 고려한 선발방식을 통해 선발의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한편, 아직 성숙되지 않은 특정 연령층에 보여 준 아주 적은 능력을 그 개인이 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으로 보고 이 능력수준은 평생을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은 매우 타당하지 않은 오류이다. 이 오류가 대학에 의해 매년 되풀이해서 반복되고 있다. 잠재된 능력을 찾아낼 수 있는 입학사정자들의 혜안과 대학 고유의 입학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4. 사회적 배제보다는 사회적 배려와 포함을 중시

대학은 한 사회 안에서 다양한 계층들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각축의 장(contested terrain)이기도 하다. 이 경쟁은 공정하고 객관화된 게임의 법칙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제한된 자원의 투입이 요구된다. 우리 사회는 이 자원이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분배되어 있는 자본주의사회이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교육경쟁의 게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계층의 자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점 역시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

려와 포함을 무시한 채 한 사회의 질서의 유지나, 능력에 따른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지고한 가치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학은 이들 계층의 자녀들에 대한 나름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의 다양성을 학생선발에서부터 구현해낼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현행 제도의 부수적 배려를 넘어 보다 적극적인 인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5. 인지적 자본뿐만 아니라 도덕적 자본의 형성을 중시

한 사회의 통합과 발전은 인지적 능력의 축적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경제 발전의 이면에는 인간 개인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신뢰의 추락과 도덕적 해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놓여 있다. 과도한 경쟁은 협업과 공생의 덕을 훼손시켰고, 시장과 국가의 실패 경험은 제도에 대한 신뢰의 실추로 이어져 우리 사회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는 데 있어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새로운 수준의 사회발전은 개인의 입신과 영달보다는 사회를 위한 희생과 봉사를 미덕으로 삼을 때, 권력과 재화의 축적을 지향하기 보다는 일상의 행복과 공동체적 삶을 발전시키려 노력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 행위양식뿐만 아니라 공동체 지향적 행위양식을 추구하는 인재관의 형성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것이 바로 대학에서 인지적 능력 기준 못지 않게 도덕적 능력 기준에 의한 선발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6. 민족적 폐쇄성에서 전(全) 지구적 수준의 철학과 능력배양을 중시

그 동안 국가주도적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는 사회통합을 지나치리만큼 강조해 왔다. 언어를 비롯한 문화적 동질감은 피부, 인종과 같은 생물학적 동질성에 의해 강화되어 사회의 다양성보다는 분열없는 통일과 단합이 민족적 정체감을 형성하는 요체였다. 과도한 동질성의 강조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유지하는 데 기

여한 반면, 다른 민족, 다른 세계를 상대적으로 인정하고 우리를 그들과의 동등한 관계 속에 위치시켜 사유하고 행동하는 습속을 형성하는 데는 미진했다.

그러나 이미 전(全) 세계적 개방과 정치·

경제·문화적 교류가 급증한 지구적 환경에서 우리 중심의 인식은 세계 중심의 인식으로, 자신 중심의 인식은 타인과의 관계 중심의 인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 사회 또한 급속하게 동질적 사회로부터 다원주의적 사회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그간 우리 사회의 균열의 유일 기준이었던 반공주의와 지역주의가 약화되고, 세대, 이념, 성, 계층에 따른 세계관, 인생관, 직업관, 정치의식 등에 있어서 다양한 분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다차원적 균열은 일견 위험해 보이나 사실은 다양성을 전제로 한 건전한 이질성의 공존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질성을 인정할 때, 배제와 차별 보다는 우리는 상대에 대한 인정을 통해 참여와 포용의 덕을 갖출 수 있다. 그리고 특수성

보다는 보편성을, 내집단주의보다는 탈집단주의적 사유와 행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인재관은 우리 사회 내부의 다양화와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편성을 지닌 인성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질이 사회적 보상의 주요 기준으로 형성되어 필요하다면 이런 자질을 육성할 수 있도록 대학의 이상을 전환하여야 한다. 학생의 선발과 교육은 전(全) 지구적인 리더십을 배양할 수 있는 과정의 시작이며, 다양한 국적과 피부색을 가진 인종들이 우리의 대학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이다.

Ⅶ. 다양성의 실현을 위한 중·단기적 과제

새로운 인재관을 다양한 맥락에서 형성해내고, 이를 대입전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중간적 실행과정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다양성의 실현은 사회적 원칙의 확립과 이에 근거한 개별 대학 내외의 조직역량의 확보를 중간 목표로 하여 이 원칙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대입전형의 다양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다.

첫째,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형방법을 다양화하더라도 이 조건을 만족할 만한 다양성이 사전에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새로운 전형안은 공허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학력 및 비학력기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인재의

장래성과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주체들인 교사들의 평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연구와 방책이 개발·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선발의 주체인 대학이나 학과가 다양화, 특성화, 전문화 되어야 한다. 다양한 기준에 의해 선발하였더라도 선발된 학생들에게 실질적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 다양한 선발방법 그 자체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학의 운영에서 백화점식 학과 개설과 정원채우기식의 관행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미 현실적으로 학과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대거 등장함에 따라 조만간 개별 대학은 역량에 따라 소멸과 해체의 운명을 겪게 되어 있다. 복잡한 대학간 M&A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학과 학과는 학습과 연구라는 고유의 대학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다양한 학문과 연구의 지향점을 설정하여 최고의 질을 유지하고 특화된 영역을 개발할 수 있는 조직역량을 갖춘 대학과 학과만이 선발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한편 학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학력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입학 대상 학생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재선발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지식을 가진 전문적인 선발담당자들이 필요하다. 수능점수에 나타난 현재의 능력뿐만 아니라 자극과 기회를 제공하게 되면 훌륭히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인재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과 혜안을 가진 전문인과 대학별로 독특한 선발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대학 조직의 모든 당사자가 학생선발과 이에 적합한 교육역량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지난한 노력이 요구된다.

VII. 맺는 말

대학의 자율성과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같은 복합적 목표가 대학에서의 학생선발의 다양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일반적으로 탈집중화(decentralization)는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제정책이 재정의 약화 및 시장의 강화와 병행하여 발생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자율성과 다양성의 확대라는 변화는 대학에 대한 국가 통제 약화의 반영이다. 학력과 비학력기준을 동시에 고려한 전형기준을 교육 및 사회 철학과 건학이념에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들의 조직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개별 대학은 주어진 물적, 인적, 제도적 자원(조직역량)을 기초로 하여 대학에 요구되는 복합적이며 상충하는 가치를 선택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다양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구현해 나가야 할 것 인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이 결정은 개별대학의 교과과정과 평가과정이 대학인의 자유로운 사유와 활동이라는 대학의 궁극적 목표를 독자적으로 추구해 가는데 있어서 핵심적 요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1998).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
선안.
- 교육부(1999). “대입전형의 다양화 방안 연
구.” 교육부정책보고서.
- 연합뉴스, 2004년 2월 11일 기사
- 조선일보, 2004년 2월 16일 기사.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2004). 입시제도
의 변화 :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
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4). 대학입학전형계
획 주요사항
- Howard Gardner(2001). 『다중지능의 이론
과 실제』. 김명희 · 이경희 공역. 서울 : 양
서원.

박병진

한양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학
교에서 사회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양대학교 입학
관리실 전문위원 및 제3섹터연구소 객원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교사의 권한강화 : 조건과 결과』, 『실업계교육
기피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 등이 있으며, “재학-재수생의
학업성취도와 적응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